

## 「청양군민 만족시대」 열어가겠다!



이 석 화 | 청양군수

1946년 충남 청양 출생  
2008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1년 아산경찰서장  
2002년 대전중부경찰서장  
2005년 청양경찰서장  
2010년 민선 5기 청양군수  
2012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2014년 민선 6기 청양군수

### ▲ 당선 소감

청양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난 4년의 임기동안 군정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다시 한 번 청양군수로 당선시켜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청양군의 미래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군민여러분께서 열망하고 기다리던 새 희망과 행복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군민 대 회합으로 통합하고 행정의 원칙과 투명성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군정 역량을 확립해 나가겠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군정 시책과 새롭게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하고 부자농촌과 인구증가라는 큰 목표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차별 없고 소외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군민을 위한 군수로서, 더욱 열심히 「청양군민 만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

### ▲ 현재, 청양군의 주요 현안 과제는

우선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당락을 떠나서 좋은 정책은 수용하고 서로 격려

하며 화합 속에 청양발전을 이룩하도록 앞장서겠다. 청양 역사상 가장 호기를 맞고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군민의 단결과 지혜를 결집시켜 위대한 청양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기초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을 군정 목표를 가속화하고 온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증진에 진력하면서 과감한 농업정책으로 희망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통해 전 군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역점사업 및 공약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청양은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모든 문제를 군민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로 위대한 청양! 미래 100년의 기틀을 세워 나가겠다.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꿈과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교육명품도시 청양을 만들겠다. 또한, 사랑과 행복, 정성을 담은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청양을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 제일의 문화 관광 생태도시로 매력있는 고장을 만들고 믿음과 소통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민선5기 동안 부진했던 사업이나 공약사항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민선 5기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과 교육명품도시 6개 사업, 맞춤형 복지실현 11개 사업, 문화, 관광, 생태도시 조성 8개 사업, 맞춤형 지방자치 실현 4개 사업 등의 5개 분야 44개 사업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

###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5기에 기초를 다져놓은 ‘부자 농촌 만들기’와 ‘인구 증가가 가장 큰 군정 목표’이다.

농업관련 예산을 연간 1,200억 원으로 끌어올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를 설치해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

또한 50년 만에 이룩한 인구증가의 여세로 2020년까지 청양인구를 3만 5,000명으로 늘여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무산된 스틸산업단지 부지에 새로운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정산지역에 청정 산업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와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양의 구도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환승제를 실시하겠다.

청양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의 200억 원 조성을 달성해 교육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청양출신 학생이 청양대학에 입학할 경우 2년 동안 교육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며

청양대학에 (가칭)야간농업정보학과를 신설토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청양·정산 재래시장 상권 회복,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열악한 문화 인프라도 대거 확충해 젊은이들을 끌어 모을 유인으로 삼겠다.

### ▲ 2020 미래비전을 그려 본다면

청양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세워지고 충남도청 신도시와 서해안권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청양군이 전국에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칠갑산, 칠갑호, 천장호, 지천구곡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출렁다리, 천문대, 장곡사, 고운식물원 등 관광자원은 연간 관광객 2백 만 시대를 넘어 3백 만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부여~청양~평택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확정 발표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음은 분명 청양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총력을 다 하겠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에 청정청양, 자연과 함께 살기좋은 청양 건설을 목표로 인구 3만 5천명, 역대 농부 3백명,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는 「2020 청양 비전」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충남의 중심지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청정 청양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관광농업을 발전시키고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 확대와 청정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전국 최고의 내륙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은 이러한 청양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청양군민과 함께 청양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청양을 만들어 나가겠다.

###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한 번 청양군수로 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은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눈에 띄게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4년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청양군 대 도약의 큰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기간이었다.

청양발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청양군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군민 모두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공약을 잘 실천하여 청양발전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